

##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하 상 일\*\*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언어의<br>식과 주제의식 |
| II.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br>와 현황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전개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깊고 더하여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를 완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이 글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총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첫째,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현황을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정리해보았다. 가장 먼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 토대가 되는 주요 매체를 조사하고 정리하였고, 이들 매체가 당대 재일 디아스포라 문단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 주요 시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2-A00130)

\*\* 동의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인들의 활동 상황과 시적 경향, 그리고 작품 발표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우리말과 일본어 사이에서의 선택, 남한과 북한의 국가주의적 호출라는 외적 결과가 재일 디아스포라 문단을 이원화해버린 현실에서 그 문학적 양상 또한 전혀 이질적인 양상을 노골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시대구분 방법과 서술방법을 제시해보았다.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세대론적 관점의 유효성을 발견하였고, 그 서술에 있어서도 연대기적 방법을 지양하고 시인론과 주제론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둘째,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언어의식과 주제의식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언어의식과 주제의식이다. 특히 모어(母語)인 일본어와 모국어(母國語)인 한국어 사이의 이중 언어 현실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민감한 조건이 되었다. 주제의식을 살펴보면, 민족공동체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구현, 분단조국의 통일과 저항적 주체의 형성, 재일의 실존성 인식과 디아스포라적 사유의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 재일한국-조선인, 탈식민, 분단, 민족, 허남기, 강순, 김시종, 남시우, 정화흙, 정화수, 김윤, 김학렬

## I. 머리말

최근 들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민족, 탈국가 담론이 급부상하면서 ‘디아스포라(diaspora)’의 문제의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 속에서 민족 혹은 국가에 대한 경계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주노동자, 무국적자, 다문화가족, 언어의 혼종성 등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문제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적 사유는 이와 같은 급격한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아주 유효한 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디아스포

라는 전지구적인 탈영토화 과정, 국적을 초월한 이주와 문화적 혼종성 등을 내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개념으로, 문학, 역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제한성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떠남을 강요당한 세계 여러 민족의 구성원들을 두루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sup> 현재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는데, 사프란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그 특성으로 첫째,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의 주변적인 장소로의 이동, 둘째,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 셋째, 거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희망의 포기과 그로 인한 거주국 사회에서의 소외와 격리, 넷째, 조상의 모국을 후손들이 결국 회귀할 진정한 이상적인 땅으로 보는 견해, 다섯째, 모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헌신, 여섯째,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정리하였다.<sup>2)</sup> 반면에 클리포드는 강요된 분산이나 국외 추방, 손실 등의 의미보다 중재하는 문화들(mediating culture)로서의 디아스포라의 건설적인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모국으로 귀환하려는 의지를 포기 내지 유보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않은 이주자 집단들까지도 디아

1) 대문자의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본래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사전상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소문자 보통명사(diaspora)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13쪽.

2) W.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Vol. 1, No. 1, 1991. 본고에서는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3년 9월, 102~103쪽에서 재인용.

스포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sup>3)</sup> 전자의 경우는 이산 민족의 공동체적 경험과 정체성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역사적·정치적·이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하고, 후자의 경우는 국가 혹은 민족 간의 대립과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 교섭의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디아스포라의 개념 역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중층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디아스포라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재일 디아스포라의 시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해방 이후 재일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모어(母語)와 모국어(母國語)의 갈등이라는 이중 언어의 모순을 구체화하는 실증적인 연구방법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의 정립에 있어서도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체를 민족 혹은 국가의 범주 안에서 전유하거나 동일화하려는 위험성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주의의 호출을 거부하고 ‘재일’의 독자성을 유지해온 재일 디아스포라의 개별적 특수성마저 민족 혹은 국가의 관념적 테두리 안에서 획일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식민과 분단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내면화한 재일 1세대, 2세대와 민족과 국가의 현실을 경험적 실체로 공유하지 못한 재일 3세대 이후의 지금 세대가 지닌 디아스포라적 사유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세대간의 문학적 양상 또한 확연하게 다른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분단조국의 현실로 인해 남과 북 어느 한 국가로

3) Clifford James, "Diaspora",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본고에서는 임유경, 「디아스포라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학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8년 7월 2일, 연변대학교, 138쪽에서 재인용.

의 선택을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명분과 일본어의 실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던 재일동포 내부의 이질성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민족, 국가,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구속을 뛰어 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개괄하여 각 시기별로 주요 시인들의 활동과 주요 매체들의 현황을 정리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문학, 일문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이 창작한 문학을 명명하는 용어의 통일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 왔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은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아, 재일(자이니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러한 혼란은 국적, 이념, 정체성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 관계와 일본에서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적 변별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확정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이질성과 다양성을 보이는 이들의 문학활동을 ‘재일’의 특수성 속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재정립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일컫는 대부분의 용어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구속을 벗어나 디아스포라적 관점과 방법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의 문학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지닌 명칭이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괄하는 객관적인 명칭으로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일 문인들의 언어적 이중성 또한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일문학계에서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재일동포가 일본인 독

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창작한 문학으로 그 범주를 제한하는 반면, 국문학계의 입장은 우리 동포들의 일본어 작품뿐만 아니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출신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말 작품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일본문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일본문학 연구의 한 분야로 시작되었다가 최근에 이르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국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가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 등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재일 작가들의 소설이나 식민과 분단을 서사화한 일본어 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하였다. 이는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실상과 재일 디아스포라로서의 사회적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념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한계가 명백하다. 게다가 장르에 있어서도 식민과 분단 그리고 재일의 상처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서사화한 소설문학에 압도된 나머지 시문학을 지나치게 소외시킨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지금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시문학 분야를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연구의 종합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sup>4)</sup>

4) 필자의 궁극적인 연구목표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를 쓰는 데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앞으로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정리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체적 현황을 토대로 시대, 매체, 시인, 작품 등을 두루 초점화한 개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라는 총체적 결실을 거두고자 한다.

## II.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현황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재일 디아스포라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신문, 잡지 등 매체의 성격과 문단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둘째, 재일 1세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주요 시인들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정리, 셋째,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의 시대구분과 서술방법 정립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관련 자료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상당수가 소실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또한 재일 3세대 이후 세대들은 민족 정체성의 급격한 약화로 인해 관련 자료들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일 1세대와 2세대들이 남긴 중요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일본의 대학 도서관 창고 등과 같은 곳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무릅쓰고 제한된 영역 내에서나마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입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는 대로 깊고 더하여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의 실증성을 더욱 배가시킬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1. 주요 매체의 성격과 문단 조직과의 관계

해방 이후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약 200만 명에 달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140만 명 정도가 귀국하고 대략 6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잔류하였다.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해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 이상이 귀국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좌우의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휩싸인 조국의 혼란스러운 정세와 귀

국 후 생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원화된 국가이데올로기의 장막에 갇혀 조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sup>5)</sup>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일본 잔류를 선택한 재일동포들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일본의 차별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연맹중앙위원회(1945. 9.)을 시작으로 재일조선인연맹(1945. 10.),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1945. 11.), 신조선건설동맹(1946. 1.), 재일조선거류민단(1946. 10.), 재일조선문화단체연합회(1947. 2.),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1947. 3.), 재일조선문학회(1948. 1.) 등을 잇달아 결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지켜나가는 조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이념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신문, 잡지 등을 창간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언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재일조선인연맹에서 발간한 『민중신문』(→『우리신문』(1946. 8.)→『해방신문』(1946. 9.)→『조선민보』(1957. 1.)→『조선신보』(1961. 1.~현재))와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에서 발간한 『조선신문』(1946. 3.) 등의 신문<sup>6)</sup>, 『고려문예』(1946. 11.), 『조선시』(1946. 3.), 『조련문화』(1946. 4.), 『우리문학』(1948. 8.) 등의 한글잡지, 조선신보사에서 발간한 종합지 『민주조선』(1946. 10.)과 문예지 『조선문예』(1947. 10.), 그리고 『자유조선』(1946) 등의 일본어 잡지가 있다.<sup>7)</sup> 이 가운데 해방 직후 재일 디

5) 『역사교과서 재일 코리안의 역사』 작성위원회 편, 신준수·이봉숙 옮김,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106~115쪽 참조.

6) 1946년 당시 전국지와 지방지를 합해 재일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발행한 신문은 무려 170종에 달했다고 한다. 「해방 5년, 동포신문 사정 - ⑤ 170종의 재일동포신문」, 『조선신보』, 2006. 4. 11.

7)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문예지는 『고려문예』이다. 1945년 11월 27일 창간호를 냈고, 4호(1946.1.15.)까지 한 달에 두 번 간행되었다. 『조선시』(1946.3.1.)는 발행인 이화석, 편집인 길원성을 중심으로 창간



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매체로는 『민주조선』과 『조선문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조선』은 종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지면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문예지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고, 김달수, 허남기, 이은직 등 일본에 거주하는 문인들과 김대준, 임화, 이태준 등 조선문학가동맹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하였다. 10호의 경우에는 『문화조선』이라는 잡지명으로 발간되었고, 출판사의 교체도 찾아서 민주조선사(1~3호), 조선문화사(4~9호), 문화조선사(10호), 조선문화사(11~22호)로 계속 변경되다가 23호부터 민주조선사에서 종간호까지 발간하였다. 『조선문예』는 재일조선인연맹의 하위조직이었던 재일조선문학자회에 소속된 문인들과 이들 가운데 김달수, 허남기 등이 관여하였던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 계열의 『신일본문학』 출신 일본 문인들을 주요 필자로 하여 발간된 잡지이다. 따라서 대체로 『조선문예』가 표방한 문학이념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성격을 일관되게 견지하였고, 재일 문인들의 일본어 글쓰기 등과 같은 첨예한 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후로도 허남기의 개인잡지였던 『맥』(1951. 3. 26.), 『민주조선』의 후계지 역할을 모색한 『조선평론』(1951. 12.~1954. 8. 제9호까지 간행), 김시종을 주축으로 한 오사카 조선시인집단의 기관지 『진달

---

된 시 전문 잡지이고, 『조련문화』(1946.4.5.)는 재일조선인연맹의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며, 『우리문학』(1948.8.1)은 이은직을 발행인으로 재일본조선문학회에서 창간한 잡지이다. 그리고 『민주조선』은 1946년 4월부터 1950년 7월까지 통권 33호에 이르는 일본어 종합지이고, 『조선문예』는 『민주조선』이 14호를 간행하고 15호를 준비하던 무렵인 1947년 10월 창간된 종합문예지로, 박삼문이 발행·편집을 맡고, 김달수, 이은직, 허남기, 강순 등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조선』은 1946년 창간되어 잠시 휴간되었다가 1947년 9월 복간된 잡지로, 『민주조선』, 『조선문예』가 대체로 좌파적 성향의 잡지라면, 『자유조선』은 이와 정반대로 우파적 성향의 잡지였다고 할 수 있다. 호데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2, 79~103쪽 참조.

래』(1953. 2. 16. 창간 이후 문예동 결성 이전까지 20여 호를 발간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등이 있었고, 문예동 결성 무렵을 전후하여 『계림』(1958. 11.~1959. 11. 5호까지 발간), 『조선문화』(1962. 7.~1962. 10. 4호까지 발간), 『조양』(1963. 1, 3. 2호까지 발간) 등이 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자료의 전모가 확인되지 않아 그 구체적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 역시 두 개의 조직, 즉 북의 노선을 지지했던 재일조선인연맹(조련)과 남의 이념을 추종했던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으로 이원화되고 말았다. 그런데 두 조직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의 대립만큼이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였고, 급기야는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조련은 1949년 한신(阪神) 교육투쟁으로 미군정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한 이후 일부 맹원들이 일본공산당 산하기관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에 가담함으로써 한동안 명맥을 유지하다가 1955년 민전을 해체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을 결성하였다. 이 때부터 일본 내의 우리 민족은 민단과 총련의 두 조직과 이들 단체가 지지하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학 활동 또한 이러한 두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이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9년 총련 산하 문예동 결성 이후 창작활동에 있어서 일본어 쓰기를 금지시키고 우리말 쓰기를 공식화<sup>8)</sup>함으로써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8) 1955년, 민족적 주체를 지키려 총련이 결성된 후 비로소 우리 작가도 일본어문학이 아니라 모국어 문학 창조에 나서야 한다는 자각을 가슴 깊이 가다듬게 되었다. 당시 일본문단의 총아로 이름이 높았던 시인 허남기(초대 문예동 위원장)도 일본말 창작에서부터 우리말 창작으로 전환하였다. (중략) 우리 작가가 우리 민족어로 문학을 한다는 '정상'의 일이 그러나 '이상'의 우경화 바람이 휩쓰는 여기 일본땅에서는 역풍을 뚫고 나가야 할 힘든 투쟁의 메시지를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일조선문학, 그 본질적 특징은 첫째로 일제 식민지 시기 빼앗긴 우리말을 도로 찾고 민족어에 담긴 민족정신과 민족의 숨결로 살려

즉 당시 총련의 지도노선에 반발해 김달수, 김시중, 양석일 등의 문인들이 총련과 문예동의 노선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sup>9)</sup> 그 결과 이후 전개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양상은 문예동의 작품 활동과 문예동 이외의 작품 활동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우선 문예동에서 발간한 매체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학예술』, 『겨레문학』, 『종소리』 등이다. 『문학예술』은 문예동의 기관지로 1960년 1월 창간되어 1999년 6월까지 총 109호를 발간했는데, 문예동의 이념과 성격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한글 잡지이다. 김일성의 교시를 바탕으로 총련의 지향성과 문예동의 창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총련계 재일 문인들의 문학 활동 지침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창간 당시에는 김석범이 편집을 맡았고, 이후 홍윤표, 소영호, 정화흠 등이 편집을 맡아 ‘공산주의적 전형’ 창조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작품 창작에 주력하였다.<sup>10)</sup> 『겨레문

는, 즉 재일동포들의 ‘자기회복’의 문학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김학렬, 「시지 『종소리』가 나오기까지 - 재일조선시문학이 지향하는 것」, 『치마저고리』, 219~220쪽.

9) 이들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어 글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김시중의 경우를 통해 들어보면 이리하다. 김시중은 일본어를 ‘국어’로 배웠고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계기로 뒤늦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우리말을 채 익히기도 전에, 그는 다시 도망치듯 조국을 떠나 일본에서 일본어로 시를 쓰는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과거 역사의 지배자의 나라에서 지배자의 언어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는, “나는 내 요람 시절의 꿈을 가득 품고 있는 일본어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다. 과중한 규제를 받으며 습득한 일본어를, 일본인을 향한 최대의 무기로서 나는 구사하고 싶다. 일본인의 시각, 일본인의 감성, 일본인의 사유를 깨뜨리는 무기로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시중이 구사하는 시어는 우선 일본의 전통시 와카(和歌)가 지닌 서정적 운율을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의 표현은 일본어이면서 일본어와는 다른 독특한 울림을 띤다. 유숙자, 「‘틈새’의 실존을 묻는다 -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김시중 시선집 『경계의 시』, 소화, 2008, 182~183쪽 참조.

10) <문예동>은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창작 지침을 그대로 수용,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리얼리즘을 북한식의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으로 정초해간다. 대부분의 평론은 김일성과 조국(북

학』은 『문학예술』 휴간 이후 문예동의 기관지로 새로 창간된 순수 문예 잡지로, 2000년 5월 여름호를 창간호로 2002년 8월 제7호까지 발간하고 중단되었다.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게재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재일 조선인 문학사를 정리하는 두 가지 기획물<sup>11)</sup>을 싣고 있다는 점과 매호 ‘신인작품’ 란을 두어 여러 명의 신인들의 시와 단편소설을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획은 2000년대 이후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 총련의 문학 창작 방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겨레문학』을 통해 『문학예술』의 시대와는 다른 재일 조선인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문예동의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시전문지 『종소리』이다. 문예동이 주장하는 재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과 지향성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빼앗긴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찾아 민족어에 담긴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것, 식민지 노예상태를 거절하고 일본의 동화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통일민족과 통일문학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sup>12)</sup> 『종소리』는 이러한 문예동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변화와 갱신을 선도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

한)에 대한 충성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해 ‘총련애국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일성의 교시, 북한노동당의 노선, 그리고 조직 강령 등이 평론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이상갑, 「재일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6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3, 413쪽.

- 11)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시문학 연구」, 『겨레문학』 1호~4호 ; 려운산, 「재일조선인연극운동일지」, 5~6호.
- 12) 김학렬, 「재일조선문학이란?」, 『종소리』 23호, 2005년 여름호, 58~62쪽 참조.
- 13) 『종소리』는 2000년 1월 창간되어 2009년 1월 신년호까지 총 37호를 발간한, 정화수, 김학렬, 홍윤표, 정화흠, 김두권, 김윤희 등 재일 1세대와 2세대 문인들이 주축이 된 시전문지이다. 2004년 11월에는 『종소리』 20호 발간을 기념하여 『종소리 시인집』이라는 시선집을 출간했고, 2008년 2월에는 남한에서 종소리대표 시선집 『치마저고리』(김응교 편, 화남)를 출간하기도 했다. 김응교, 「재일조선인

다음으로 문예동의 노선에 반기를 들고 조직에서 이탈했거나 처음부터 문예동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었던 재일 문인들에 의해 발간된 잡지로는, 『한양』, 『삼천리』, 『청구』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4)</sup> 『한양』은 1962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창간되어 1984년 3·4월호(통권 177호)로 중단된 한글 종합지이다. 『한양』은 당시 변혁기에 있었던 1960년대 한국 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4월혁명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와 혁신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중요한 매체이다. 『한양』의 창간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만한 매체가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재일동포로서 남한과의 문화적 교류와 비판적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특히 1960년대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서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적 성격을 분명하게 견지하였다.<sup>15)</sup> 『삼천리』는 1975년 2월 창간하여 1987년 5월 제50호로 중단된 일본어 계간 종합문예지이다. 역사학자와 문인들이 연합하여 만든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한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조선의 역사와 문화, 재일조선인들의 실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오적」 필화사건에 휘말렸던 김지하의 문학을 창간호 특집으로 내세움으로써,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과 남한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조선어 시전문지 『종소리』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년 2월, 237~276. ; 하상일,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년 4월, 171~192쪽 참조.

14) 이 외에도 『아리랑』, 『우리』, 『우리생활』, 『해협』, 『한국문예』, 『사이』, 『현대코리아』, 『마당』, 『민도』, 『친화』, 『코리아평론』, 『코리아 마이너리티 연구』, 『국민총력』, 『국민문학』, 『호르몬문화』, 『제주도』, 『봉선화』, 『나그네』, 『도라지』 등 다양한 매체가 있으나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문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5)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50호,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쪽;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 201~227쪽.

을 제시하는 역사와 문학의 통합적 시각을 줄곧 견지하였다. 『청구』는 1989년 8월에 창간하여 1996년 2월 통권 25호까지 발간되었는데, 편집진 가운데 상당수가 『삼천리』와 겹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천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잡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삼천리』가 제일 1세대를 주축으로 발간한 잡지였다면, 『청구』는 그 이후 세대를 이어줌으로써 제일동포 사회의 세대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가교(架橋)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 2. 주요 시인의 활동과 작품 발표 현황

해방 이후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초석을 닦은 시인으로는 허남기, 강순, 남시우<sup>17)</sup>, 김시중 등이 있다. 이들을 시작으로 김윤, 정화흠, 김학렬, 정화수, 홍운표, 김두권, 김윤희, 김리박 등의 활동과 작품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허남기의 초기시와 김시중의 시는 일본어로 이루어졌고, 현재 <종소리시인회>에 참여하고 있는 총련계 시인들은 모두 한글로 창작했으며, 총련 계열이 아니지만 한글 시쓰기를 지금까지 지켜온 시인으로 김윤, 김리박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까지 제일 디아스포라

16) 하상일, 「제일 한인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문학회, 2006, 391~417쪽 참조.

17) 김학렬은 “해방직후에는 지식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려고 나섰으나 그 후 정치분야, 교육분야 등에 진출하여 사회과학분야에 나선 사람들도 있고, 시집을 낸 사람은 강순(『조선부락시초』)과 남시우(『봄소식』), 허남기(일어서 『朝鮮冬物語』) 뿐이며, 조국(북한-필자 주)에서 나온 첫시집 『조국에 드리는 노래』에는 허남기, 남시우, 강순의 3인만이 있었다. 따라서 해방직후 1950년대까지는 엄격히 말해서 시문학역량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그 핵심에는 단 3인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허남기, 남시우, 강순의 3인 시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회·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 추진위원회·제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공동 주최, <제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2월 11일, 와세다대학교, 3~4쪽. 김시중의 경우에는 『진달래』 사건 이후 총련 조직과는 무관하게 활동하였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문학 연구는 장혁주, 김사랑,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등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관심이 서사문학의 대중성에 기댄 일본 소설계의 유행적 흐름에 지나치게 편승해 있었다는 점과 재일문학의 범주를 일본어문학에 한정 시킨 일문학계의 연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문학의 경우 한글로 창작을 한 문예동 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이념적인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재구해 보면, 당시 문학적 양상은 김달수, 이은직 등의 소설가와 허남기, 강순 등의 시인을 주축으로 시와 소설 두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시와 소설을 모두 망라한 종합적인 지형 속에서 총체적인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sup>18)</sup>

허남기(1918. 6. 24. ~1988. 11. 17.)는 부산 구포에서 태어나 부산제2상업학교(현재 부산개성고등학교)을 졸업하고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학 예술과에 입학하여 조선연극단체 <형상좌(形象座)>를 통해 희곡을 쓰고 연극 공연도 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말로 연극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극단도 해산되어<sup>19)</sup>

18) 해방 이후 출간된 『조선문예』(1947년 10월 창간)만 보더라도, 김달수, 이은직, 허남기, 강순 등이 필자로 참여하여 시와 소설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허남기, 강순의 시문학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초석을 닦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다른 소설가들에 비해 연구의 대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편향된 연구 결과로 인해 현재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장르로는 소설 중심, 언어로는 일본어 중심의 텍스트에 압도된 연구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이른바 형상좌(形象座)사건으로 불리는데, 1939년 12월 일본 경찰들은 당시 도쿄 조선인 학생 연극단이 조선말로 한 연극활동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하여 연극단과 연극 공연에 관계한 학생들을 검거하였다. 손지원, 「시인 허남기와 그의 작품 연구」,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270쪽.

다음해 중앙대학 법학부로 학적을 옮겨 졸업하였다. 제일조선연맹(조선) 중앙 문화부 부부장(1948. 10.), 『민주조선』 편집장(1949. 2.), 제일조선문학회 위원장(1957. 7.), 문예동 위원장(1974. 3.)을 역임했고, 일본어시집 『朝鮮冬物語』(朝日書房, 1949), 『日本時事詩集』(朝日書房, 1950), 『화승총의 노래』(朝日書房, 1951), 『허남기시집』(東京書林, 1955), 『조선해협』(國文社, 1959) 등을 출간했으며, 우리말시집으로 『조국을 향하여』(조선작가동맹, 1962), 『돌에 깃든 이야기』(문예동, 1967), 『낙동강』(문예동중앙, 1978), 『조국의 하늘 우리러』(평양문예출판사, 1980) 등을 펴냈으며, 유고 시선집 『조국에 바치여』(평양출판사, 1992)가 출간되기도 했다.

해내외에 널리 알려진 시인 허남기는 20세의 청춘시절부터 70세를 일기로 일본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조국의 통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살며 싸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시인이었고 저명한 사회활동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오랜 세월 애수와 비탄의 주제로 되고 있는 이국살이를 낙천과 투쟁의 주제로 전환시킨 첫 시인 대렬에 속하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남반부에서 활동하던 진보적인 시인, 작가들이 대거 월북 등의 사정으로 비우게 되었던 사실주의문학의 공간을 메꾼 시인이기도 했다.

인용문(『조국에 바치여』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허남기는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시인, 해방 이후 월북 문인들의 빈자리를 메운 사실주의 시인으로 북한문학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물론 이러한 북한문학계의 평가는 그가 생전에 총련 부의장을 지낼 정도로 핵심적인 활동을 했고, 문예동 위원장으로 제일 조선인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라는 외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적 측면이 그의 시세계의 중요성을 훼손시킬만한 근거는 결코 되지 못한다. 남한문학계에서도 그의 서사시 『화승총의 노래』가 민영 시인에 의해 번역 출판된 바 있고, “동포시인 가운데 제일 문학적 성과가 뛰어난 분”<sup>20)</sup>이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작품성이 아주 탁월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sup>21)</sup>

강순(1918. 2. ~1987. 12. 18.)<sup>22)</sup>은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1937년 와세다대학 불문과에 입학했고, 해방 이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조선신보사 편집국 기자로 활동하였다. 1964년 조선신보사에서 『강순시집』을 내놓고서는 조총련 내부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좌경적인 비판사업에 반발하여 조선신보사를 퇴직하고, 이후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김지하, 양성우, 신경림, 김수영, 신동엽, 조태일, 이성부 등 남한의 진보적 시인들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 소개하는 데 매달렸다. 그가 낸 시집으로는 한글시집으로 『조선부락』(1953), 『불씨』(등사판, 1956), 『강순시집』(강순시집발간회 편, 조선신보사, 1964), 『강바람』(강순국문시집간행위원회, 梨花書房, 1984), 일본어시집 『날라리(なるなり)』(思潮社, 1970), 『斷章』(書舎かいおん, 1986)을 출간하였다. 강순의 시세계는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정서인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기조로 하는데, 『강순시집』의 시와 『강바람』의 시는 그 경향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다루면서도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남한에 대한 비판 등 총련의 일원으로서의 정치성을 강하게 보여준 반면, 주로 총련을 탈퇴한 이후 창작한 시를 수록한 『강바람』에는 총련과 민단

20) 민영, 「허남기 선생에게 - 역자로부터 저자에게」, 『화승총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8, 107쪽.

21) 허남기 시인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손지원의 「시인 허남기와 그의 작품 연구」(앞의 책)와 하상일의 「해방 직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허남기의 시를 중심으로」(『우리말글』 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8.)가 있다.

22) 강순의 본명은 강면성(姜冕星)이다. 이는 필자가 2009년 1월 일본 동경 외곽에 있는 그의 묘소를 직접 참배하고 묘비명을 통해 확인하였다. 해방 직후 발간된 『백민(白民)』의 핵심 인물이 김경식, 강면성이고 『백민』이 1948년 결성된 <재일 조선문학회>의 주축 가운데 한 그룹이라는 점에서,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강순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그야말로 재일 지식인의 중립적 위치에서 비판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세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sup>23)</sup>

남시우(1926. 7. 15.~2007. 3. 22.)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48년 와세다대학 노문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동경조선고급학교 교원을 거쳐 재일조선문화단체연합회(문단련) 사무국장, 총련 중앙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1956년부터 조선대학교 문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1979년부터는 조선대학교 학장을 역임하며 총련계 재일 지식인들과 문인들을 양성하는 데 매진하였다. 시집으로 『길』(1949), 『조국의 품안에』(재일조선문학회, 1959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조국에 드리는 송가』(평양문예출판사, 1982), 동시집으로 『봄소식』(도쿄조고어머니회연합회, 1953), 일본어 평론집으로 『主體的藝術論』(未來社, 1983)이 있다. 그의 시는 “남성적인 허남기의 시풍과 대조적인 여성적 서정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동시집 『봄소식』의 규칙적이고 정형적인 격조에서 잘 드러나듯이, “유순한 음악성을 지닌 멋있는 울조가 섬세한 서정과 맞물리는 독특한 격조”<sup>24)</sup>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김시중(1929~)은 함경도 원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194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재일조선인운

23) 강순 시의 사실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윤의섭은, 1930년대 카프시와의 영향 관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순의 시가 카프시의 이념적 지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카프시의 사실주의적 창작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를 1920~30년대 카프시의 영향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식민지 시기 항일 저항시의 계보와도 관련시켜 이해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의섭, 「재일동포 강순 시 연구」,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223~254쪽 참조. 이 외에도 강순 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학렬의 「재일 민족시인 강순 - 시집 『강바람』, 애통과 사랑과 걱정의 세계」(미발표원고)와 사이토 마모루, 「望郷の詩人 姜舜」(『植民地と祖國分斷わた生詩人たち』, 일본; 토요미술사출판사, 2002)이 있다.

24)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앞의 자료집, 5쪽.

동의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0년 5월 26일 『신오사카신문』에 첫 일본어 시 「꿈같은 일」을 발표하면서 시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1951년 오사카 재일조선인문화협회에서 발간한 종합지 『조선평론』에 참가했으며, 1953년에는 시동인지 『진달래』를 창간하기도 했다. 1957년 발표한 에세이 「장님과 뱀의 입씨름」과 시 「오사카 총련」을 통해 김일성주의를 맹신하는 총련 조직의 문학적 노선을 비판했다가 조직의 정치적 비판<sup>25)</sup>을 받고 이후 총련 조직과는 거리를 둔 채 일본어 시 창작 활동에 매진하였다.

김시종에게 ‘재일’은 북이나 남이나 라는 선택지가 아니며, 남북이 동시에 수용 가능한 열린 공간이자 실존의 장(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복안(複眼)적 사고에서 출발된 그의 재일은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재일의 역할과 가능성의 길을 터 놓는다.

그에게 “재일조선인이란 자신의 나라, 즉 북조선과 남조선을 동일한 시야, 하나의 시야에 수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정치 신조의 차이가 반드시

25) 현재 총련계 재일 조선인 문학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김시종의 창작과 평론의 주된 주장을 종합해보면, 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곧 도식주의, 교조주의를 낳는다. 따라서 재일이라는 상황에 맞는 창작방법이 필요하다는 수정주의적 견해를 펴뜨리고, ② 작품의 내용에서 조선적이고 애국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것보다 ‘현실적’이고 ‘부정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둘러싸고 당시 재일조선문학회를 중심으로 평론, 좌담회를 통하여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허남기는 「김시종 동무의 일문시집 『지평선』에 관하여」(『조선문예』 1957년 6월)에서 김시종의 희망을 잃고 난 공허한 어두운 시세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을 표시하면서 그 요인을 작가 자신의 지향성에서 찾았는데, “일본의 반제반미투쟁을 그려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그것과 조선인 김시종의 그것은 분명히 다른 각도가 있어야 한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발의 위치와 각도에 있다. 자기 발판을 다시 살펴볼 때가 아닐까? 그리고 발의 위치와 발의 각도를 다시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였다. 맹복실, 「재일조선문학의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 - 1955~1959년 평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학보』 16호, 1999. 6. 25. 50~51쪽.

동떨어진 서식 장소,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곳의 필연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조선에서 남북이 동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로 ‘재일’이 있음은 거듭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곧 시인에게는 ‘재일’이 이미 하나의 ‘조선’이라는 말이다.<sup>26)</sup>

이처럼 그는 재일 1세대이면서 누구보다 먼저 ‘재일하다’<sup>27)</sup>라는 실존적 문제에 깊이 천착한 시인이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분단의 현실에서 비롯된 ‘재일’의 실존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재일’의 존재 의의와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1955년 첫시집 『지평선』을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집 『일본풍토기』(1957)를 발간했고, 세 번째 시집으로 기획되었던 『일본풍토기Ⅱ』는 조총련과의 갈등, 「진달래」의 해산 등을 겪는 와중에 중단되었고 그 원고마저 분실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은 1970년에 와서야 장편시집으로 『니가타(新潟)』를 출간할 수 있었고, 『삼천리』에 연재하였던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은 1978년에 출간되었다. 이후 그는 『광주시편』(1983), 『들판(原野)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등의 시집을 지속적으로 출간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26) 유숙자, 「‘틈새’의 실존을 묻는다 - 재일 시인 김시종의 시세계」, 앞의 책, 180~181쪽.

27) 자이니찌스루(재일하다, 在日する)라는 말은 1980년대 이후 재일 한국인(조선인) 사이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다. 한국어로 번역해놓고 나면 문법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이 말에서 ‘자이니찌’란 전후에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일반적으로 재일 한국인(조선인)을 지칭한다. 이 말은 기존의 피동적인 ‘재일’의 의미에서 벗어나 변화가능한 정체성과 그 실천의 차원에서 사용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사실화된 국적이 아닌 ‘가정적(假定的)인 생활(김달수의 용어: 필자 주)’을 영위하는 존재로서의 ‘재일’은 그런 면에서 능동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모어(=현실)와 모국어(=동경)의 갈등은 ‘재일한다’는 말의 능동성을 창조한다. 주체인식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재일한다’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현실처럼 ‘재일’은 결국 본질적이기보다 가변적이다. 박광현, 「국민문학의 반어법, 재일문학의 ‘기원’ - 김달수의 소설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2004년 가을호, 319~320쪽.

에서 가장 활발한 시작 활동을 한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28)</sup>

정화흠(1923.3.~)은 경북 영일에서 태어나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1950년 중앙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원을 거쳐 1981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문예동 기관지 『문학예술』 편집장을 역임했고, 시집으로 『감격의 이날』(평양문예출판사, 1980), 『넘원』(문예동, 1985), 『민들레꽃』(중소리 시인회, 2000) 등이 있다. 그의 시는 “‘유희’의 문학(부르조아 순수문학)이나 ‘취미’의 문학(개인의 틀에 박힌 문학), 또 용감한 언설(정치적 교조)같은 ‘말’만의 문학을 거절하고 재일동포들의 ‘눈물 젖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풍’, 즉 서정의 바람이 되어주”<sup>29)</sup>는 경향을 드러낸다.

김운(1932~)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성장하였고 동국대학을 중퇴했다. 1950년대 전쟁 중에 부산에 모여 있었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신작품』의 동인(고석규, 천상병, 송영택, 김재섭, 김소과, 이동준)으로 활동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明治)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민단 중앙본부 선전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대문학』의 동경지사장을 역임하면서 두 권의 시집 『명든 계절』(현대문학사, 1968)과 『바람과 구름과 태양』(현대문학사, 1971)을 출간하였다. 그는 총련 계열이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말로 시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특이한 이력은 북한문학의 입장을 반영한 총련의 문학과도

28) 김시중의 시가 일본어로 씌어졌기 때문인지 그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유숙자,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在日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한림일본학연구』 제7집, 2002. ; 유숙자,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실천문학』 2002년 겨울호. ; 호소미 카즈유키, 「세계문학의 가능성 -첼란, 김시중, 이시하라 요시로의 언어체험」, 『실천문학』 1998년 가을호. ; 마츠바라 신이치, 「김시중론」,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 솔, 2001. ; 유숙자, 「‘틈새’의 실존을 묻는다 -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앞의 책 해설. ; 고명철, 「식민의 내적 논리를 내파하는 경계의 언어」, 『문학들』 2008년 여름호.

29) 김학렬, 「재일조선시문학의 근황」,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22쪽.

분명 다르고,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재일의 독자성을 드러낸 문학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0)</sup>

김학렬(1935. 1.~)은 1935년 교토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1962년 조선신보에 「일어나라, 한강 사나운 물결아!」가 당선 되면서 시작 활동을 하였다. 1996년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연구」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교수 칭호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63년부터 조선대학교 문학부 교수를 역임하는 등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이론적 기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동경외국어대와 와세다대학 등 에도 강의를 나가면서 재일 문학의 대외적 교류와 소개에도 정열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시집으로는 『삼지연』(문예동, 1979), 『아, 조국은』(평양 문예출판사, 1990)이 있다.<sup>31)</sup>

정화수(1935. 9.~)는 부산 기장 출생으로 조선대학교 노문과를 졸업 하고 1961년부터 1983년까지 조선신보사 기자로 일했으며, 문예동 위원 장을 역임하면서 총련 계열 문학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현재 문예 동 소속 재일 조선인 시인들의 모임인 <종소리시인회> 대표를 맡아 시 전문지 『종소리』의 발행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다.<sup>32)</sup> 그가 낸 시집으로

30)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 시문학’(문예동 계열의 작품들) 작품들은 북한체제의 사상적 영향 하에 개인의 서정과 미의식의 중시보다는 사회주의적 이념의 설파와 민족의 주체성 확립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창작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처럼 총련 산하의 문예동이 재일동포 문학 활동의 중심 거점을 형성했던 당시에 이에 소속되지 않은 비동맹원의 문학 활동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시기 독자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던 문인들로서는 김리박, 리승순 등과 민단계의 김파우, 김경식(소설), 김희명(평론), 황명동, 김윤(시) 등이 있다. 김은영, 「김윤 시 연구」, 김학렬 외, 앞의 책, 192~193쪽.

31) 김학렬의 시에 대한 연구, 홍용희의 「재일조선시와 조국의 노래 - 김학렬의 시 세계를 중심으로」(『시작』 2005년 가을호)가 있다.

32) 2006년 1월과 2007년 1월에 연구지는 일본 동경에 있는 정화수 시인의 집을 두 번 방문했는데, 그 때 그는 앞으로 『종소리』를 통해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재 2009년 신춘호(제37호)까지 발간한 『종소리』의 시작품들을 객관적으로

는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평양 문예출판사, 1980)가 있다.<sup>33)</sup>

### 3.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시대구분과 서술방법

모든 문학사의 전개 과정이 그러하듯,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구분과 서술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분단된 조국의 현실로 인해 민단과 총련으로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현실에서, 두 경향을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라는 이중언어의 선택 사이에서 문자의 이원성마저 노골화되어 한국문학으로의 귀속 여부마저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 재일 1세대에서 3세대 이후로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정체성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적 지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서술이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문학에 대한 시대구분과 서술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문학사적으로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성과물로는 손지원의 『조국을 노래한 재일 조선 시문학 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sup>34)</sup>가 있다. 이 책은 1948년부터 1990

---

분석해 보면, 그가 밝힌 대로 북한의 이념에 경도된 지난 시절의 재일 조선인의 시적 경향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되어 서정의 본령에 가까운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이 외에도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시인으로 중추월, 김리박, 김두권, 김운호, 홍운표, 오상홍, 이승순 등 상당수가 있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모두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 대표적 시인들만 개략적으로 언급하였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시인들을 연구하는 별도의 논문에서 더욱 구체화시킬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34) 이 책의 내용은 『겨레문학』 창간호(2000년 여름호)부터 제4호(2001년 봄호)까지

년까지 발표된 재일 조선인 시문학을 총망라하여 세 단계로 나누고, 각 시대별로 특징과 시인 및 시집들의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조국을 노래한 재일조선시문학의 발전과정은 재일조선인 운동과 문예운동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공화국 창건 이후 총련이 결성되기 이전까지의 시기(1948년 9월~1955년 4월)와 총련 결성 이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 작품창작에서 일대 개화기를 열어놓은 시기(1955년 5월~1973년)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활발하게 창작한 시기(70년대 중엽 이후부터 1990년까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35)</sup>

손지원의 연구는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전체적 양상을 월단위로까지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문학과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틀 위에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특수성을 전혀 살피지 못한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다. 게다가 총련 내부의 시문학적 흐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를 갖추지도 못한 결정적 단점이 있다. 김학렬은 이와 같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시대구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는 북한문학과와의 관계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일 조선인 문학의 독자적 성격과 활동 양상을 북한문학사에 전적으로 기대어 서술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의 전개과정을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크게 나누었다. 그리고 각 시대별 세부 특징으로, 1950년대까지는 ‘시문학 역량의 형성기’, 1960년대는 ‘시문학 역량의 정비기’, 1970년대는 ‘시문학 역량의 확대기’, 1980년대는 ‘창작의 양양·발전기’, 1990년

나누어 연재되기도 했다.

35) 손지원, 앞의 책, 17쪽.



대는 ‘시련 속의 창작의 심화기’, 그리고 2000년대는 ‘새로운 전환 지향기’로 명명하였다.<sup>36)</sup> 하지만 김학렬의 시대구분 역시 우리말로 이루어진 시문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십 년 단위의 시대구분이라는 일반적인 시문학사의 체계 위에서 각 시대별 주요 시인과 작품을 열거하는 평면적인 서술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 연구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임현영은 ‘편의상’이란 전제를 달고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출생지와 세대를 고려하여 식민지 시기, 제1세대, 제2세대 혹은 과도기, 신세대, 귀화인으로 구분하였고<sup>37)</sup>, 이경수는 김학렬의 구분에 기대어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형성기의 시문학, 1970~80년대에 이르는 발전기의 시문학,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전환기의 시문학으로 나누었다.<sup>38)</sup> 이한창은 재일동포문학의 역사를 초창기(구한말~1930년대 이전), 저항과 전향문학기(1930년대 이후~해방 전), 조국 현실기(해방 후~1960년까지), 사회고발 문학기(1960년 말부터 70년대까지), 주체성 탐색문학기(80년대 이후)로 구분하였다.<sup>39)</sup> 이러한 시대구분 역시 국적, 세대, 언어 등의 제한적 조건 안에서 정리된 것이므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연구는 ‘누가’, 어떤 ‘언어’로 ‘무엇’을 썼느냐 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고, 문학사적 시대구분과 서술방법은 연구자들마다 편의적인 방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일관성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이중언어의 현

36)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앞의 글, 1~2쪽.

37) 임현영, 「일본 근현대사와 재일동포문학」, 『치마저고리』, 앞의 책, 210쪽.

38) 이경수,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의 전개과정」,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 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앞의 책, 105쪽.

39) 이한창, 「재일 동포문학의 역사와 그 연구 현황」,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제이앤씨, 2008, 7~27쪽.

실, 조직의 이원화 등과 같은 현실적·제도적 장벽과 국문학계와 일문학계의 연구대상과 범주의 차이로 인해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를 세우지도 못하였다. 물론 모든 문학사가 그러하듯, 문학사적 사실이나 결과물 자체를 전부 포괄하는 문학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언어, 이념, 세대 등과 같은 외적 문제로 인해 문학사의 불구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시대구분과 서술방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연구대상은 민단과 총련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재일동포가 창작한 시문학 모두를 포괄하여 그 범주를 정한다.

둘째, 일본어로 된 시문학만을 재일동포문학으로 보는 일문학계의 견해와 일본어로 쓰여진 시문학은 재일동포문학으로 볼 수 없다는 총련계의 입장 모두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이중언어의 현실을 뛰어 넘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전체적인 지형을 조감한다.

셋째, 남북한 문학사와의 직접적 연계에 지나치게 얽매어 재일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념적 시대구분을 지양하고, 재일의 실존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인 ‘세대’적 변별성을 중심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의 서술체계를 재정립한다.

넷째, 서술방법에 있어서 세대별로 전개되어 온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세대별 시문학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시인론과 주제론의 두 가지 방향을 병행하는 종합적 서술이 되도록 한다.

### Ⅲ.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언어의식과 주제의식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정체성(identity)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식과 주제의식 두 가지이다. 언어의식의 문제는 모어(母語)로서의 일본어와 모국어(母國語)로서의 우리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대립해온 재일 디아스포라의 이중언어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제의식의 방향은 식민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처의 결과인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자기인식과 현실인식의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재일 1세대와 2세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실한 현안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재일 3세대 이후가 주도하는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볼 때는 민족과 국가를 초점화한 재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과 이해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언어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재일 3세대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우리말이 모국어(母國語)라는 인식조차 추상적인 관념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인 현실을 전혀 도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은 민족성과 저항성의 도식화된 틀을 넘어서 당면한 재일의 실존적 상황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재일성(在日性)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1. 재일 디아스포라의 이중 언어 현실과 언어의식

재외 한민족 문학 전체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 즉 모국어로서의 우리말과 재외민(在外民)으로서의 생활언어인 현지 언어 사이의 갈등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인 황민화 정책과 동화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강요한 일본의 제국주의 언어 정책<sup>40)</sup>을 생각할 때,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에 있어서 일본

어의 선택은 표기수단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내재한 정체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은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을 국어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어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반민족적인 자괴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식민지 지배국에 정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생활 언어로서의 일본어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문제를 깊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우리말의 사용은 관념적 실체로서의 민족과 국가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당위적 선택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언어의 현실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념적·조직적 대립과 반목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언어의 선택이 곧 문학적 지향의 차이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왜곡된 양상으로 심화되기도 하였다.

나의 종전, 나의 해방이라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 때에도 자신의 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빼앗겼고, 나라가 돌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것이 너의 나라다 하고 나라를 받았지요. 저에게는 억지로 떠맡겨진 것과 같은 것이었지요, 자신의 조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글자는 하나도 알지 못했고, 한자 이외에는 몰랐으니까. 그런 자신이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맞은 해방이, 실제로 저에게 있어서 해방이란 무엇인가, 결국 자신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것인가 라는 것은, 제자신의 언어 문제로서 지금도 불들

40) 1911년(메이지 44년)의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은 「조선어 및 한문(朝鮮語及漢文)」이라는 기만적인 과목이었으며, 거기에서는 실제로는 한문만이 혹은 한문 해석의 단순한 보조 수단으로서 조선어가 가르쳐진 데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어’는 ‘국어(일본어) 교육을 위한 보조 수단이기도 했다. 이것은 제10조인 “조선어 및 한문을 가르치는 데는 항상 국어와 연락을 유지하며 때로는 국어로 해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2006, 295~296쪽.

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그야말로 저는 벽을 긁는 듯한 심정으로 자기 나라의 글자와 읽기 쓰기를 2개월 정도 공부해서 우선 습득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崔賢 선생님이라는 세상에 드문 인생의 스승, 대단한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글자를 배우고 역사를 알아가는 기쁨을 배워 겨우 자신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제 안에서 해방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지금도 붙들고 있는 문제. 그것은 당시 고국의 말조차 몰랐던 자신, 저의 심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해방이란 무엇인가를 지금도 생각합니다.<sup>41)</sup>(굵은 글씨 : 필자 강조)

김시중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식민지 시기 일본어를 국어로 공부하여 일본어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그래서 일본어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내면을 지배하도록 교육받은 세대였다. 그 결과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말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심한 자괴감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러한 내적 방향은 제일 1세대가 보편적으로 경험한 혼란과 혼돈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방 이후 민족과 국가에 호명되어 “벽을 긁는 듯한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우리말 공부에 매달렸지만, 이미 가슴 깊이 내면화되어 버린 일본어를 버리지 못하는 자괴감 속에서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일본어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일본인을 향한 최대의 무기로 재인식하는<sup>42)</sup>, 그래서 일본인의 시각과 감성과 사

41) 김석범·김시중(대담), 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역,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출판부, 2007, 19~20쪽.

42) 이러한 문제의식은 해방 이후 제일 문인들에게 보편적인 언어의식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달수는 식민지 정책을 역이용해서 우리들은 일본어를 공격의 무기로 바꾸어 일본인 독자에게 우리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허남기는 『火繩銃のうた』 후기에서 식민지 백성, 망국민으로서의 괴로운 시련을 일본보다 앞서 겪어 온 조선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조선이 일본제국주의의 독니에 걸려 조국의 독립을 완전히 상실해 온 과정을 일본의 독자 제군에게 알려야 할 필요, 그보다도 오히려 의무에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달수, 「植民地のなかからの作家」, 『わか文學』, 筑摩書房, 1976, 113쪽. ; 이소가이

유를 깨뜨리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언어로 자신이 사용하는 일본어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sup>43)</sup> 물론 이러한 선택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어로 글을 쓰는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식민지 지배국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재일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중 언어의 현실은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전혀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sup>44)</sup>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는 일본어로 이루어진 문학만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연구 대상으로 수용하는 외국문학으로서의 일본문학 연구자

---

지로, 「在日文學의變容と繼承」, 『靑丘』 13, 1992. 秋, 57쪽. 본고에서는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 12, 184쪽에서 재인용.

- 43) 최근 김시중은 일본어로 시를 쓰는 자신의 언어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나는 언어를 펼치기보다 자신을 형성해온 언어를, 의식의 웅덩이 같은 일본어를 시의 필터로 걸러내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자꾸만 딱딱하게 굳어지고 문장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에세이 하나 쓰는 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힘겹게 하여 어깨만 결릴 뿐입니다. 에세이를 쓰면서도 실은 시 쓰기와 비슷합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변투로 글을 써도 좋으려만, 그러면 단박에 능숙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자신으로 되돌아갈까 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시는 이미 없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자신에게 강요한 강박관념에 얽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고 질서에 완고하게 눌러앉은 일본어에 대한 나의 자학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김시중, 「내 안의 일본과 일본어」, 『아시아』 2008년 봄호, 113쪽.
- 44) 이와 같은 언어적 현실은 재일 2~3세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심각한 갈등과 모순을 불러왔는데, 처음부터 일본어를 모어(母語)로 받아들인 그들에게 있어서 모국어(母國語)로서의 우리말은 사실상 관념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재일 3세대 작가 이양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명분상 또는 관념상으로는 한국어는 모국어이며, 저의 아이덴티티의 중심에 위치해야만 하는 언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로는 모국어인 한국어는 어디까지나 외국어이며 이국의 언어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양지, 「한 재일동포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 :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 『한국논단』 1990년 12월호, 226쪽.

들의 관점에 국문학계의 연구가 다소 경도된 측면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현재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일본문학 내부의 평가나 이미 일본화가 되어 버린 재일동포 독자들의 평가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우리말로 글을 쓰는, 그래서 일본문학계의 평가로부터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총련계 시인, 소설가들의 작품도 동등한 위치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현실은 일본문학계의 평가 유무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그 독자성이나 주체성의 자리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문학계에서 전개되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방향마저 재일동포 문학을 사실상 일본어 문학으로 이해하려는, 그래서 일본어로 쓰여진 작품만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규정하는 일본문학 연구자들의 시각을 추종하는 측면이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어로 된 문학이 주류이고 우리말로 된 문학은 비주류라는 관점이나, 일본어로 된 문학은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만 우리말로 된 문학은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분법적 판단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름과 판단에는 이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이중언어 현실을 편향되게 바라보는 관점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말 쓰기만을 고집하는 총련계의 입장 역시 민족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종속된 나머지 재일 디아스포라의 변화된 현실을 맹목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완고한 태도가 오히려 일본 내에서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위상을 제약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미래조차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한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특정한 언어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 넘어 '재일'의 실존성에 뿌리내린 새

로운 위상의 정립이 시급하다. 일본어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첨예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일본어와 우리말로 동시에 쓰여지고 있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현실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만 한다. 일본어로 이루어진 자신의 소설을 향해 던져진 ‘이것이 조선문학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석범은, 자신은 재일조선인문학을 조선문학이라고 명명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재일조선인문학은 ‘재일’이라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 말 그대로 ‘재일조선인의 문학’일 뿐이라고 밝힌 점<sup>45)</sup>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재일 디아스포라의 언어의식은 모어(일본어의 현실)와 모국어(우리말의 당위) 사이의 긴장된 모순을 뛰어 넘는, 그래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조건인 이중언어 현실을 어떠한 편견 없이 수용하는 데서 비로소 적극적인 의미를 발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2.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실존적 상황과 주제의식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식민과 분단의 상처를 경험한 조국의 현실을 온몸으로 겨안은 재일동포들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실존적 상황으로 내면화하였다. 따라서 작품의 성격이나 주제가 개인의 정서나 내면성의 확대로 구현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초점화하거나 심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온 측면이 두드러진다. 물론 고향의 들판에 핀 꽃이나 식물, 음식, 풍습, 가족, 풍경 등을 제재로 한 전통 서정시의 경향을 드러낸 작품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러한 서정적 지향 역시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산의 아픔과 상처를 개인의 정서를 통해 시적으로 변용한, 그래서 조국을 향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45) 김석범, 「〈民族虛無主義の所産〉について」, 『三千里』 20호, 1979. 11. ; 이재봉, 앞의 글에서 재인용.



다. 즉 이러한 개인적 정서의 심화와 확대 역시 분단의 상처에서 비롯된 역사의식을 깊숙이 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소가이 지로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재일 조선인들의 자기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의 추구’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재일 조선인 문학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 아이덴티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항적 아이덴티티, 민족적 아이덴티티, 재일적 아이덴티티, 실존적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것이다. 저항적 아이덴티티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주제로 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데서 구현되는 것이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조국(조국의 상황)으로의 귀일 감정과 통일 지향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며, 재일적 아이덴티티는 일본 국가와 사회가 초래하는 부조리에 대항함으로써 방향지어지는 것이고, 실존적 아이덴티티는 인간 존재를 내면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찾게 되는 것이다.<sup>46)</sup> 물론 이러한 네 가지 지향성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이 네 가지 지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첩되고 통합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한 가지 지향성만이 개별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지향성의 구분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면 오히려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향성의 체계는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유효한 길잡이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47)</sup> 다만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서술

46) 이소가이 지로, 『‘在日’文學論』, 新幹社, 2004, 7~112쪽. 본고에서는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65~66쪽에서 재인용.

47) 福岡安則이 허트닉(N. Hutnic)의 분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조선인 피억압 역사의 중시도와 일본에서 성장한 지역에의 애착도를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나누어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의 모순과 긴장 관계를 공생지향(함께 살기), 조국지향(해외공민), 귀화지향(일본인 되기), 개인지향(자기실현)으로 구분한 점도 상당히 현실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정체성의 구분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지향점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하는 데 있어서 세대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할 때, 재일적 아이덴티티와 실존적 아이덴티티의 경우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재일 3세대 이후의 의식에 맞닿아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지향성을 통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sup>48)</sup>

#### 1) 민족공동체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구현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민족과 국가는 개인의 의식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식민지 망국민으로서의 고통의 세월을 뛰어 넘어 해방의 감격을 채 누릴 겨를도 없이, 여전히 일본에 남았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일본인 되기를 강요받았던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과 국가는 비록 관념적인 실체로 남아 있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념이요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 민속, 풍물, 자연, 노래, 놀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밑바탕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고향 마을의 꽃들과 풀들, 토속적인 음식들<sup>49)</sup>, 지역의 특산물 등을 주요 제재로 선택하여 민족공동체의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다. Hutnic, N., "patterns of ethnic minority identification and modes of social adapt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9(2), 1986. ; 福岡安則, 『在日韓國・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1993. 본고에서는 윤일성,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4집, 2003. 8. 282쪽에서 재인용.

48)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그리고 총론격인 이 글의 성격을 감안하여 재일 동포의 정체성을 내면화한 세 가지 주제의식의 대략적인 의미만 밝히고, 자세한 논의는 개별 시인론이나 주제론을 다루는 별도의 글을 통해 구체화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49) 북한의 평론가 류만은, "민속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을 노래한 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류만,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중소리』 - 시잡지 『중소리』를 읽고」, 『중소리』 제27호, 2006년 여름호, 50쪽.

특별히 주목하여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우리말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제고하는 시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2) 분단조국의 통일과 저항적 주체의 형성

식민과 분단의 경험을 내면화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있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로 남아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재일조선문학자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정신을 이어온 좌파 계열의 재일 문인들은, 분단된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참여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는 저항적 주체의 형성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즉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통해 진정한 민족해방을 실현하려 했던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을 거름으로 삼아, 분단의 모순과 상처를 넘어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남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6·15 남북작가대회의 감격,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입장 등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정치시의 양상을 전면화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특징은 총련계 문예동 출신의 작품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난다.

### 3) 재일의 실존성 인식과 디아스포라적 사유의 확대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세대의 차이가 문학적 지향의 차이를 가져오는 독특한 양상을 드러낸다. 즉 재일 1세대와 2세대가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일본에서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민족적 저항, 그리고 분단의식과 통일의식을 목표로 한 비판적 리얼리즘의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재일 3세대 이후의 세대는 민족과 국가에 구속된 혈통의식이나 일본어와 우리말 사이의 갈등에 크게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전혀 다른 문학적 관심과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재일 3세대 이후의 세대에게 있어서 ‘재일’은 이념의 차원이 아닌 생활의 문제이므로, 재일 1세대와 2세대가 계승하고자 하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은 관념적 이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과 국가를 뛰어 넘어 ‘재일’의 현실을 일본

에서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방법과 다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사유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의 ‘틈새(in-between-ness)’<sup>50)</sup>를 창조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적 사유의 확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탈민족 혹은 탈국가 담론을 현실추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역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자칫 재일의 실존성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재일 1세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연속성을 부정하거나 깨뜨려버리는 단절된 양상으로 심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 서술을 궁극적 목표로 한 총론의 성격을 지닌 글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전반의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난점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모든 자료를 일일이 열거하는 평이한 서술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앞섰지만, 자료의 전모를 펼쳐놓지 않고서는 문학사 전체를 개괄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서술상의 어려움을 피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료 정리에 있어서도,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 어정쩡한 글이 되고 말았다. 이

50) 릴라 간디는 제국주의에 의해 강화된 문화와 정체성들이 전지구적으로 혼합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hybridity)’과 ‘이산(diaspora)’이라는 용어의 분석적 다재다능함과 이론적 탄력성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혼성’이라는 용어에 의해 상징되는 ‘틈(in-between-ness)’이라는 개념은 이에 수반되는 ‘이산’이라는 개념에 의해 더욱 정교화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디아스포라적 사유는 문화적 탈공간(dislocation)의 의미를 생성함으로써 재일의 실존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산적으로 모색하는 뚜렷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61~167쪽 참조.

러한 서술상의 문제점은 본고 이후에 전개될 개별 시인론과 주제론에서 좀더 깊고 더하여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의 총론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현황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 토대가 되는 주요 매체를 조사하여 문학사적 위상을 밝혀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가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단이나 조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지속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 두드러진 활동을 한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의 면모와 시적 경향 그리고 시집 현황 등을 두루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서지작업은 일일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칠고 성긴 구석이 너무도 많아 아쉬움을 남게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리만으로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자료를 좀더 찾아 깊고 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작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여러 현황들을 다시 정리한다면 더욱 명료하고 실증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시대구분과 서술방법에 대해 논증하였다. 무엇보다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재일 1세대와 재일 3세대 이후 세대의 변별성을 주목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세대론적 시대구분과 서술방법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연구의 주요 관점으로 언어의식과 주제 의식의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모어(母語)인 일본어와 모국어(母國語)인 우리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중언어의 현실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주제의식의 구현에 있어서도, 민족공동체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구현, 분단조국의 통일과 저항적 주체의 형성, 그리고 재일의 실존성 인식과 디아스포라적 사유의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재일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전반을 이러한 사회역사적 문제의식 안에 가두어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지점에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사의 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명철, 「식민의 내적 논리를 내파하는 경계의 언어」, 『문학들』 2008년 여름호, 266~285쪽.
- 김시중, 「내 안의 일본과 일본어」, 『아시아』 2008년 봄호, 100~114쪽.
- 김은영, 「김윤 시 연구」,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189~221쪽.
- 김응교, 「재일조선인 조선어 시전문지 『중소리』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2. 237~276쪽.
- 김학렬, 「재일 민족시인 강순 - 시집 『강바람』, 애통과 사랑과 격정의 세계」, 미발표원고.
-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회 외 <재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자료집, 와세다대학교, 2004. 12. 11, 1~11쪽.
- 김학렬, 「재일조선문학이란?」, 『중소리』 23호, 2005년 여름호, 58~62쪽.
- 김학렬, 「재일조선시문학의 근황」,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13~97쪽.
- 김학렬, 「시지 『중소리』가 나오기까지 - 재일조선시문학이 지향하는 것」, 『치마저고리』, 화남, 2008, 218~234쪽.
- 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역,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출판부, 2007.
- 박광현, 「국민문학의 반어법, 재일문학의 '기원' - 김달수의 소설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2004년 가을호, 312~328쪽.
- 사이토 마모루, 「望郷の 詩人 姜舜」, 『植民地と祖國分斷わた生詩人たち』, 일본:토요미술사출판사, 2002, 76~96쪽.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 손지원, 「시인 허남기와 그의 작품 연구」,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269~287쪽.
- 손지원, 『조국을 노래한 재일 조선 시문학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
- 유숙자, 「‘틈새’의 실존을 묻는다 -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경계의 시』, 소화, 2008, 176~189쪽.
- 윤의섭, 「재일동포 강순 시 연구」,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223~254쪽.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 사회학』 제37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3. 9, 101~142쪽.
- 이경수,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의 전개과정」,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100~138쪽.
- 이상갑, 「재일 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68집, 한국언어학회, 2009. 3, 411~434쪽.
- 이연숙, 고영진·임경호 옮김,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2006.
-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 12, 163~199쪽.
- 이한창, 「재일 동포문학의 역사와 그 연구 현황」, 전북대학교 재일동포 연구소 편,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제이앤씨, 2008, 7~27쪽.
- 임유경, 「디아스포라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학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8. 7. 137~154쪽.
- 임현영, 「일본 근현대사와 재일동포문학」, 『치마저고리』, 화남, 2008, 201~217쪽.
-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50호,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



-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391~417쪽.
- 하상일,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양상과 의미 - 허남기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427~451쪽.
-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 201~227쪽.
- 하상일,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171~192쪽.
-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호, 서울대인문학연구소, 2002, 79~103쪽.
- 홍용희, 「재일조선시와 조국의 노래 - 김학렬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시작』 2005년 가을호, 220~231쪽.

<Abstract>

## The History and Meaning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after the Emancipation

Ha, Sang-Il

This paper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literary meaning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after the Emancipation in general. Based on this, it ultimately aims to complete the history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as patching it up and supplementing it. Moreover, this study has characteristics as an outline for that purpose.

First, this paper summarizes the history and the actual status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largely in three points. First of all, it investigates and arranges the main media which built the foundation to establish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after the Emancipation and examines how those media were related with the literary circles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of the day. Next, it organizes the activities, poetic inclinations, and work publications of prominent poets after the Emancipation. In the reality in which external circumstances like the selec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or the nationalistic call from South or North Korea dualized the literary circles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it can be seen that the literature, too, exposed totally different aspects conspicuously. Finally, for describing the history of Korea

(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it suggests methods for periodic division or description. For periodic division, it found out the effectiveness of generation theory regarding the distinctiveness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And for description, it determined that it was more desirable to avoid the chronological method and use theories of poets and themes simultaneously.

Second, this paper studies the linguistic or thematic consciousness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The biggest issue in defining the identity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ry after the Emancipation is the linguistic or thematic consciousness. Especially the bilingual reality between the mother tongue, Japanese, and the native language, Korean, became the most sensitive condition which formed the identity of Korea(chosun)-Japanese diaspora poets. Their thematic consciousness was embodied in three directions: the historic and symbolic realiza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national reunification and the formation of resistant subjects, and the existential cognition of Japan and the extension of diasporic ideology.

Key Words : diaspora, Korea(chosun)-japanese, Post-colonial, Division, Nation, Hur Nam-gi, Kang Sun, Kim Si-jong, Nam Si-woo, Jeong Hwa-hum, Jeong Hwa-su, Kim Yun, Kim Hak-ryl